

신령한 예배
찬곡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원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라

이번 주 금요찬양집회(19일) 시, 헨델의 <메시아> 찬양



기적과 은총의 날인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며 이번 주 금요찬양집회 시에 성탄축하 연합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히 이 날에는 350여 명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대원이 지난 3개월 동안 준비한 헨델의 <메시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헨델의 <메시아>는 아름다운 서정, 웅장한 합창과 폭넓은 아리아 등 음악적으로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수난과 속죄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세계를 담고 있는 복음 중심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원교회 연합찬양대 및 연합오케스트라에 의해 드려질 <메시아>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탄생, 예수님의 수난과 속죄, 부활의 확신과 영원한 나라 등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예언과 구세주의 탄생, 그리고 메시아가 평범한 인간으로 겹어야 할 오갖 고통과 죽음을 겪었다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릴 것이라는 약속으로 광대하게 열립니다. 구세주가 곧 올 것이라는 내용의 합창은 환상적인 화음으로 찬양의 은혜를 더할 것입니다. 이 은혜는 2부의

끝 곡 <합렐루야>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8부의 곡은 속죄사역을 마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찬양이 이어지며 이 모든 일의 이루어짐을 확인하는 <아멘>의 합창으로 마칩니다.

크리스마스는 연말연시의 분위기를 돋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파티나 선물교환으로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며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도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인류구원을 위해서 기를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 금요찬양집회 시에 있을 <메시아> 찬양은 그 어떤 연말모임보다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준비하는 참 신자가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입니다. 혼자만 오리지 마시고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주일(21일) 찬양예배는 은퇴자 시상(은퇴자 영단은 본지 7면) 및 특별제직회(2008년 결산 및 2009년 예산)

말씀과 삶(금요찬양집회)

좌절당한 자의 고백 (미가 7:1~7)

았다. "제왕이라도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만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갑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미가는 자신의 가슴 깊은 곳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유대를 향하여 예레미야도 그의 심정을 털어 놓았다. (렐 11:10, 13:14, 12:4, 14:14)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담아 보여주었다. (롬 7:21~24) 성을 장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미가 선지자도 실망과 좌절감, 그 나라 백성들로 인해 탄식하는 자신의 심정을 쏟아 놓았다. "제왕이라도. 나여"

미가 선지자가 실망하는 데에는 이유가 분명하다. 저주의 길로 가는 불쌍한 백성들을 향하여 생명을 내어 놓고 '회개하라!'고 외쳐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유다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더 악하게 반항하였다.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의 축복을 예언하였고, 사회적인 악과 개인적인 영적 부패가 심해졌다. 이와 같은 현실 앞에 미가 선지자는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던 것이다. (미 7:1)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들에게 추수의 열매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슬프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쁘게 일을 하였던 아름다운 열매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조차 없는 절절한 상황을 보며 미가 선지자는 울 수밖에 없었다. (미 7:2)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자들이 없는 백성들이 되어 버렸다. (사 57:1; 창 18:23~24; 렐 5:1~2)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아무리 살펴봐도 경건한 자들을 찾기 힘들다. (렐 22:30~31) 더 안타까운 것은 경건했던 자들의 타락이다.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이 극도로 자기 것만 아는 이기적인 자들이 된 것을 보았다. 살인과 도적질하는 것은 가장 이기적인 행동을 대표한다. 그러나 살인자와 도적만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산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여에 '나'는 항상 대문자 'I'이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무조건 따르지 않는다. 무엇을 알고, 이해하고 나면 행하였다

고 하나님께 요구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오늘날의 선지자들 역시 이토록 극하게 깔려 있는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불경건함에 분노를 느껴야 한다.

미가 선지자는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자들을 볼 때에 분노하였다. 특히 지도자와 재판관들의 악한 행동을 그를 더욱 노하게 하였다. (미 7:3) 정의를 행하여 질서를 지켜야 할 재판관과 지도자들은 뇌물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암 5:12; 미 3:11) 이와 같이 미가는 부도덕한 자들을 가시와 쐬리로 비유하였다. 가시와 쐬리는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것들을 그림으로 나타내 주는데 사용되는 대명사와 같은 것이다. (미 7:4) 미가는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쐬리보다 더하다고 외쳤다. 오늘날에 존경받고 있는 인적자들, 목사, 신학교 교수들이 정진 차려서 들어야 할 부름보다.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지도자들 때문에 진리를 분별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분노해야 한다.

미가 선지자가 자신감을 잃고 실망에 빠진 이유는 그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모든 관계들이 그를 실망시켰기 때문이다. (미 7:5) 미가는 그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조차도 믿고 신뢰할 수 없었다. (미 7:6)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렐 9:4~5) 그럼에도 경건한 사람들은 진정한 신뢰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 미가의 외침이다.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신뢰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선지자는 자신의 실망과 분노와 절망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나 이 어떠한 것도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던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주장하도록 그의 마음을 정하였다. 미가는 탄식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하였으나 이제 그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미 7:7)로 결론을 내린다. 믿음의 체험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사 25:9)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의 모습이다. (시 20:6~7)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을 가지고 바라본다. 미가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경건한 삶은 때때로 우리를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한다. 악은 현존하고 불경건한 자들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모양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이 지배를 받으며 괴로워하며 절망에 빠지지 말자.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전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자. (롬 1:16~17) 아멘.

GOD GIVES US THE GREATEST SALVATION

⁽¹⁾For the grace of God has appeared, bringing salvation to all men,

⁽²⁾instructing us to deny ungodliness and worldly desires and to live sensibly, righteously and godly in the present age,

⁽³⁾looking for the blessed hope and the appearing of the glory of our great God and Savior, Christ Jesus,

⁽⁴⁾who gave Himself for us to redeem us from every lawless deed, and to purify for Himself a people for His own possession, zealous for good deeds. (Titus 2:11~14)

The Christmas message is all about salvation. God gave His Son, Jesus Christ, to deliver all His people from the power and effects of sin, "She will bear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Mt. 1:21) When Mary gave birth to Jesus the gift of God's grace entered this world. Human beings cannot measure such great generosity and love. Forgiveness is a tremendous gift. Jesus cleanses our sins and makes us His family member. This is the good news! For all who receive this news, Jesus asks each one to proclaim it. How can the human mind grasp such wonder? How can we even reasonably describe it? For the past two thousand plus years, the church talks about salvation but you and I have such a small understanding. Today's Bible message gives us a brief explanation of God's salvation plan. It describes God's involvement with our past, present, and future. Many of today's Christians only take in the effects of God's salvation on their past. They miss out on His great present influence and the wonderful hope that He gives us for the future. We need to understand God's all encompassing salvation, so that we can fully appreciate and respond to His great salvation gift of Jesus Christ.

Salvation is important for our past life, "For the grace of God has appeared, bringing salvation to all men." (v. 11) Jesus came to this earth to save us from our sins. He gave His life not only for yesterday's sins or last year's sins, but for all the sins that originated from Adam's first sin, "He made Him who knew no sin to be sin on our behalf, so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2Cor. 5:21) Jesus sacrificed His life to forgive your sin, "For if while we were enemies we were reconciled to God through the death of His Son, much more, having been reconciled, we shall be saved by His life." (Rom. 5:10) By forgiving our past sins, Jesus makes it possible for u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God created us, sin separated us from Him, and Jesus reconciles us to Him. Without salvation your past life condemns you to eternal death, but with salvation your past life is forgiven and the gift of eternal life is given to you.

Salvation is important for our current life, "instructing us to deny ungodliness and worldly desires and to live sensibly, righteously and godly in the present age." (v. 12) Jesus came to this earth to give you an abundant life right now. Many people claim that Jesus Christ has saved them, but their present life is filled with their own pride and way. Their everyday living disregards salvation. Salvation shows God's love in this present time. It is not a one time event or a one time experience, but rather a day to day, moment by moment encounter. The Word of God keeps you spiritually growing. God's salvation plan always instructs our negativity. Whenever our pride, terrible words, ungodly behavior, and wrong desires turn us toward the world, our salvation always instructs us toward the right way. 1Peter 2:11~12 say, "Beloved, I urge you as

aliens and strangers to abstain from fleshly lusts which wage war against the soul. Keep your behavior excellent among the Gentiles, so that in the thing in which they slander you as evildoers, they may because of your good deeds, as they observe them, glorify God in the day of visitation." Christians are instructed to live godly, not worldly, lives. Philippians 2:12~13 say, "So then, my beloved, just as you have always obeyed, not as in my presence only,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for it is God who is at work in you, both to will and to work for His good pleasure." Obedience is part of salvation. God touches each individual one by one and works with each person one by one. His grace and love are personal, so that you can recognize His salvation. Right now, God is in control. He is a Sovereign God. He is the leader and wants to reign in your heart and life, so that you can have heaven.

Salvation is important for our future life, "looking for the blessed hope and the appearing of the glory of our great God and Savior, Christ Jesus." (v. 13) I want your life to end with a good result. When Jesus returns or you die, I do not want you to experience shame and suffering. I want you have real salvation for the future. Jesus came on Christmas to save your life, not just from the past, but for today and tomorrow. Stop living for today and tomorrow like an unsaved person. Take God's love all the time, "See how great a love the Father has bestowed on us, that we w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and such we are. For this reason the world does not know us, because it did not know Him. Beloved, now we are children of God, and it has not appeared as yet what we will be.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we will be like Him, because we will see Him just as He is." (1Jn. 3:1~2) Do you really desire the fame, fortune, and fun of this temporary world more than your salvation? I hope that you resolve to make salvation top priority. Right now, yes even now, we can know God as a child knows its father. In the future, this relationship will be so great and wonderful that there are no earthly words that can describe it. Heaven awaits those who have salvation.

My dear friend, salvation means we are saved from the consequences of sin, which is death. Jesus Christ, ".....gave Himself for us to redeem us from every lawless deed, and to purify for Himself a people for His own possession, zealous for good deeds." (v. 14) Salvation is a part of our past, present, and future. It involves our entire life. God's saving your soul is the greatest gift. It is only possible because of Jesus Christ. Believing in Jesus through faith is the greatest salvation. Who can even imagine the cost of God's free gift to us? Jesus died upon the cross, He shed His blood for our past, present, and future sin. His birth opened the way of salvation and His death sealed the promise of God's salvation. This Christmas, please let God's salvation in Jesus Christ be in your heart. Amen. ▮

다음 주일 설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¹¹⁾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¹²⁾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¹³⁾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¹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11~14)



김성관 목사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온통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의 권세와 영향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 1:21)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죄 사람은 측량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맞아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려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인간의 지성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난 2천여 년간 교회는 구원에 대해 말해왔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해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향력을 단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과거 그때에만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현재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력이나 미래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소망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고 거기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과거의 삶에 중요하다

구원은 우리의 과거의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11절)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단지 어제의 죄나 작년의 죄뿐만 아니라 아담의 원죄까지 비롯한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롬 5:10)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과거의 삶으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인해 과거의 삶은 용서받았고 영생의 선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현재의 삶에 중요하다

구원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12절) 예수님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재 삶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으로 꽂혀 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구원을 무시한 삶입니다. 구원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구원은 단 한 번의 사건이나 경험이나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 접하는 것이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부정적인 면을 교화시킵니다. 우리의 자존심, 악한 말들, 경건하지 않는 행동 그리고 잘못된 욕망들이 우리를 세상으로 향하게 할 때마다 구원은 항상 우리를 올바른 길로 되돌려 놓

습니다. 베드로전서 2:11~12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삶이 아닌 경건한 삶을 살도록 훈련받습니다. 빌립보서 2:12~13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순종은 구원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며 그들 각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미래의 삶에 중요하다

구원은 우리의 미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13절) 저는 여러분의 삶이 좋은 결말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거나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할 때 수직과 고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삶에서 참 구원을 소유한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오늘과 내일을 살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와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도 그러므로 세상을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을 하나님의 자녀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일 3:1~2) 여러분은 정말로 자신의 구원보다 덧없는 세상의 명예와 물질, 쾌락을 더 갈망하십니까? 지금 구원을 최우선순위에 둘 것을 결단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어떤 아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14절) 구원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와 관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 전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해졌습니다. 믿음은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구원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길을 열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8. 12. 10.)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히브리서 10:19~25)

본문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을 기록하였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참 기쁨과 완전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유성에 순종하면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명료한 믿음을 깨닫지 못했으니 단순한 순종

을 하지 못했다. 자신들이 연구하고 분석한 율법과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였다. 베들레헴은 알고 있었지만 베들레헴의 말기유에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르고 섞어서 복음을 교묘하게 변질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양심과 윤리, 전통과 행위의 가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대체시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보다는 탁월한 신앙행적을 통해서 성인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는 절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이 이러한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레 16:17)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히 10:19)

1. 무엇 때문인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대제사장조차도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이었다. 인간에게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의 피가 원죄를 해결한 것이며, 우리는 이 은총을 믿으면 된다. (롬 5:1~2)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엡 2:18)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뿐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배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엡 3:12)

하나님의 현존하심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회경이 찢어졌기 때문이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회경은 세 겹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인간의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찢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 회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말미암아 찢어졌다. (히 10:20) "다 이루었다"(요 19:30)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찢어진 것이다. 이로써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었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어 주셨다. (히 10:19)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요 14:6)

마가복을 강해 49

* 매우 중요해지기때문에(사복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놓고 다듬는다
(9:33~37)

제자들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십자가의 비밀이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자기관들에게 버린 바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막 8:31) 이후에 제자들은 세 명의 제들과 함께 변화하여 올라 가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또 다시 두 번이나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을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막 9:31, 10:33~34)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 단지 세상적인 욕심들만 가득할 뿐이었다. 십자가의 길을 막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다. "자나야 내 뒤로 물러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막 8:33)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거부하였다. 예수님 곁에서 복음을 듣고, 이적을 보았음에도 제자들의 초점은 오직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과 아울러 자신들이 누릴 부와 권력이었다. 특히 예수님이 변화하신 가시밭 데리고 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자신들이 누릴 놀라운 경험을 앞세워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고 했을 것이다. (막 9:2)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려고 했으며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고 서로 논쟁하며 주장하였다. 이리 같은 제자들의 모습과 마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었다. 그 아버님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었나"(막 9:33) 이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이라"(막 9:34)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쟁론하는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 죽음과 부활이었다. 마친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예수님의 고난, 죽음과 부활이다. 그럼에도 제자들처럼 우리도 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인간과의 다리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인간제사장은 한계뿐이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셨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히 10:21)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아닌가!

2. 행동의 결단이 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갈보리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인간의 힘으로 측량할 수 없다. 연구하며 분석할 수도 없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의 피를 믿고, 그 피를 힘입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히 10:22) 이 단순한 믿음의 실천으로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 8:12)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초점이라도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 약속이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히 10:24) 세상의 어떤 목표에 굳게 잡고"(히 10:23)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은 영원불변하다. 그런데 매순간 깨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흔들릴 것이다. 약한 영들의 공격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믿음을 전할 수 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히 10:24) 세상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연합해서는 안 된다. 오직 십자가를 중심으로 연합하자. 보혈로 충만하여 서로 돌아보며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전도의 사역을 위해 서로 격려하자.

모이기를 폐하지 말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 약한 영들은 항상 성도들의 연합을 방해한다. 부와 명예, 자존심과 성취감을 이용하여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있다. 한결같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그럴듯한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속지말자. 더욱 힘써 모여 함께 십자가의 은총으로 배부른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여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히 8:1~2) 기독교의 무한한 가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으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갖게 되었다. 이것 저것 따지고 세상의 가치들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베들레헴의 말기유로부터 갈보리 언덕까지 우리의 시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저주를 피하지 못한다. 지금 즉시 행동하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십자가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주 안에서 서로 돌아보자.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모든 채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향해 참 생명의 복음, 예수의 피의 복음을 전하자. 아멘.

삼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분주하지는 않으니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자.

예수님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수군거리고 논쟁하는 열두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첫 사람의 꼴이 되며 두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막 9:35) 그런데 이 진리를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주 쉽게 설명하셨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고 앉으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막 9:36~37) 어린 아이의 인내함과 순순함으로 예수님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생각을 버리고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리듯이 예수님께 매달려야 한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분명하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과 경제적인 안정, 유대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그런데 제자들은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각각 자기의 목표와 신념에만 관심이 있을 뿐 십자가는 외면하였고 무시하였던 것이다. (갈 4:1; 막 5:39~40) 왜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가르침에 어린 아이를 자주 언급하셨는지 진지하게 살펴보자. (막 10:16) "대저 온유함으로 살 것인가?" 고민하며 세상의 것들을 취하지 말고, "죄인 중에 내가 과수나무"(마태 23:15)의 화개,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끼고, 너무 보잘것없이 보이고 가치가 없어 보일지라도(마 25:40)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막 1:1) 세상에서의 부, 권력, 명예를 좇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며 영원의 세계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자.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심령에 불붙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미약하였지만 주님께서 “가라! 전하라!” 명령하셨기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순종하였다.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을 한 걸을 갈 때마다 기도하며 어린 생명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만나는 영혼은 각자있지만 나의 입술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를 기쁨으로 전하였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눈동자와 환자분들의 눈가를 보며 말씀만을 전할 수 있었다. 참으로 감사했다. 내 마음이 감동되어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찬양하며 전하였다. 때로는 그들이 완강히 거절하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때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여, 부족한 나의 입술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발걸음 돌리기도 했었다. 이런 선교를 통해 내가 만난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그 지역에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계속 기도할 것이다.

남윤철(인수집사, 8교구 4지역팀)

우리의 언어가 아닌, 주님의 언어로

세 번째 선교, 아주 큰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선교준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선교보다는 다른 것에 더욱 열심을 두고 준비를 했었다. 그로 인해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언어도, 마음가짐도 모두 부족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탔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 생각했다. 사실 내가 함하고 있는 선교지에 먼저 다녀온 이들은 “갑자기 벌금만 물다가 왔다. 사역기간 내내 경찰이 따라다녔다.” 심지어 “주방을 닦았다.”라고 했다. 이후 나의 마음엔 “잡하지만 말고 잘 다녀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앞서버렸다.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마음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선 것이다. 그러나 바로 첫 사역부터 주님은 나의 이런 생각을 버리게 하셨다. 그런 생각에서 나온 선교였기에 이웃 영혼들은 복음을 부인했고, 귀를 닫고 있었다. 결국 그날 밤 우리는 영적 준비가 부족함을 너무나 크게 깨달았고 ‘우리의 언어가 아닌, 주님의 언어로 그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다음 날 난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다. 현지인들은 전날 사역에서는 전혀 알아 듣지 못한 말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듣고 열정까지 하였다. 언어가 아닌, 믿음으로 준비했으니 말이다. 그날 밤 나는 너무나 감사했고 사역지에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님, 저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해 주세요요. 써야 할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말이다. 마지막 사역 날, 마치 천국에서 사역을 하는 것 같았다. 엄청나게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넓은 들에서 어린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너무 평화로웠다. 큰 연못 주변에 모여 있는 아이들에게 찬양도 불러주고 복음도 전했다. 마음을 나옴에서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대하심을 느꼈 수 있었다.

얼마 후 또 다른 마을에서 사역 중이었는데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던 중에 공안을 만났다. 우린 한편으로는 안도하고 주님께 감사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항상 공안을 두려워하던 나는, “잡히더라도 마지막 날 사역 다 마치고 잡히게 해 주세요요.”라고 기도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공안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벗어났다. 다시 한 번 우리 곁에서 주님이 보초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심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수도에 있는 대학을 둘러 몇몇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도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씨앗을 뿌렸습시다. 이제 우리 기를 늘려야 합니다. 주님이 길러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여러 의미가 있었던 선교였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고 비용도 내 힘으로 준비한 선교였다. 하지만 이런 세상적 의미는 버렸다. 난 이런 선교를 통해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성령님의 역사를 느꼈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이은기(대학부 9팀)

정지기칼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패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고전 1:27~29)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고 두렵고 떨렸습시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높이 받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훈을 넣어 주셨다면 더욱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텐데 나 같은 무능한 사람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때문이었습시다. 분명한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유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에 끌려 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내 심령 깊은 속에 있는 죄성을 보게 하시고 회개게 하시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도록 인도하셨습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과 또한 일꾼 삼으심이 결코 외로운 학식이나 재능과 물질과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였고,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선물이며 절대주권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셨습시다. 주님의 은혜는 낮은 자들의 위외이자 힘의심을 알게 하셨습시다.(사 41:10)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순종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시다.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소망하며 순종하게 되었고 즐겁게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날마다 순진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 찾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에 거하시길 만한 처소로서 합당한가?’ 또한 ‘모퉁이들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작은 돌이킬라도 더 붙어 하나님에 거하시길 처소를 잘 이루어 가고 있는가?’ 기도하며 예수님의 피 묻은 돌이 기초석이 되고 그 위에 다메리진 우리의 돌이 하나하나 쌓아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으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성도는 역시 자기 의지와 생가를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진리임을 믿습시다.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말 그대로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므로 자신의 의지나 생각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합니다. 그저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죄가 끌고 가는 곳으로 끌려가며 죄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자녀들은 다르다는 것을 믿습시다. 성도에게 있어서 꺾대는 십자가이며 천국입니다.(빌 3:14) 오직 앞에 있는 꺾대를 향해 어떠한 어려움과 압박이 와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일관된 신앙처럼 진직하신 예수님만 전하길 기도합니다.



김종훈
(장로, 영아부장)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8일(월)~12월 16일(목)	24교구 10지역	김두형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대학부 2학년 말에 군대에 갔다가 올해 재대하여 대학부에 돌아오니 어느덧 대학부 5학년이라는 고학년의 위치에 와 있었다. 재대 후에 그날 대학부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올해에는 후반기 팀 개편을 하면서 전도사님이 나에게 “대학부 조장으로 섬겨 보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하셨다. 처음에는 하기 싫은 마음이 더 컸던 게 사실이다. 성격이 내성적이라 나서서 무언가를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서툴고 신앙적으로도 부족한 나이에 격정과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딤후 1:7) 하나님이나에게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이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순종함으로 후반기부터 대학부 조장을 시작하게 되었고, 몇 달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었다. 조장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부족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다. 하지만 성경공부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정말 죄인 중의 괴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었다.

또한 대학부 안의 동역자들과 하나님이나 주신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고 동역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골 1:25)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말씀을 이루어 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성준(대학부)

애동하며 눈물을 토해 내는 제게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 양육에만 전념하던 중, 한 집사님의 방문전도로 주님의 말씀을 처음 접했습니다. 두 아이들을 믿을 안에서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그 집사님의 말씀이 빠르게 저를 변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영혼이라 하겠지만, 저로서는 결코 쉬운 용어들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일예배와 새가족부에서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주일이 오기만을 설렘 속에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믿지 않는 친정, 시댁식구에 남편까지 한탄한 길이 반복되면서 압박하는 가족들로 인하여 발잡을 이루지 못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지 너무나 혼란스러워 교회를 등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의 경험과 판단으로 하려 하면 할수록 어긋나기가 일쑤였고, 이삼하게도 예배와 집회를 다녀오는 날에는 느슨해진 신앙의 허파리를 다시 한 번 졸라매는 듯 새 힘이 생기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서는 기도의 끝에 완전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의 눈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금요찬양집회에 가는 날이면 두 아이들이로 인해 끊임없이 갈등하며 집회에 참석하곤 했지만 이 어리석은 죄인을 주님께서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계심을 느낍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에는 아이들을 붙잡고 애동하며 눈물을 토해 내는 저를 향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때가 차매 내가 다 이루어라. 사랑한다. 내 딸아.” 두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찬양을 들려주시며 안아주십니다. 나에게서는 분명하게 네 것처럼 보이지만, 남김없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들이마저도 말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두 아이들을 위해 가정에서의 복음사역자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제는 나의 주 예수님 중심으로 순종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이끌어 가심을 느끼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김연숙(집사, 1교구)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학업을 마치고 5년 전 회사에 입사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신생회사였지만 회사업무도 저의 전공과 맞았고 복음전파의 기회도 주어져 여러 환경들을 바라보며 입사를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사들, 예배와 봉사활동을 권장하는 회사정책들로 인해 주님께서 인도하신 회사에 대해 감사하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나가면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 회식 자리에서 세상적 문화와 타협하지 않았던 것들과 회사모임보다 교회모임을 우선하였던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팀장의 시선엔 팀워크와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받은 지적들은 제 자신에게 많은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였고, 이직까지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자가 말씀대로 살려 하면 세상에서 필박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주님은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맡은 일에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소이인 동료이자 점차 주위 동료들과 상사들에게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회사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상사 1명이 다른 팀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그 직책을 맡을 사람이 필요했는데 팀장의 결정에 의해 동기를 중 제가 선택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결정 이후 팀장은 과거와 달리 많은 신뢰를 보여 주었고 개인의 신앙생활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있지만, 세상이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변화시키 주시고(잠 16:7) 선하게 인도하심(잠 3:5~6)을 다시 한 번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조영진(집사, 21교구)

왜 깨닫지 못했을까!

금요찬양집회 때,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찬양을 부른다. 기쁨이 충만해진다. 금요찬양 연습 때 “우리 주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을 보았는 무엇을 주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찬 533장) 십자가의 사건, 구원받은 강도가 생각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을 있으리라 하시니라”(눅 23:42~43) 이 강도는 예수님을 위하여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가 한 것은 강도 짓밟아 없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했다. 그리고 강도는 구원을 받았다.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이와 같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강도는 ‘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복음서에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강도에 대한 기록이 ‘왜 없을까?’ 생각해 본다. 나도 이 강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한 바 적이 없다.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강도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자주하고 한 강도는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을 허락받았다. 십자가 복음의 은총이 이것이 아닌가! 이 강도 같은 인생들이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쉬운 복음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십자가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용호(집사, 19교구)



교회소식

별세

- 김한배 성도(송산구 권사의 부친, 유신구 장사의 장남, 88구 김경숙 씨(이) 4월 10일 사망)
- 김종석 씨(전주목은 김사자의 장남, 20구 장광구 씨(이) 8월 18일, 10일 장례)
- 이은혜 성도(송산구 타교장로의 모친, 유신구 장사의 사위, 14구 장광구 씨(이) 8월 18일, 10일 장례)
- 유광준 타교장로(유치인 김사의 부친, 조경숙 장사의 사위, 14구 장광구 씨(이) 8월 18일, 10일 장례)
- 김영국 집사(송산계 권사의 남편, 김한배 성도의 부친, 22구 구 안산구(이) 9월 18일, 11일 장례)
- 변순주 성도(변선숙 장사의 부친, 김한배 집사의 장남, 16구 구 장광구(이) 10월 18일, 12일 장례)

결혼

송두운 군(송두성 장로·김경아 집사, 88구)과 정나래 양(장로 김사·김은혜 집사의 딸, 24구) / 18일(일) 100, 갈리리

2009년도 전반기 후원장학생 선발

- 선발기준
 -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자
 - 교회학교에 재적 중인 고·대·대학원·신학대학원 학생
 - 모든 예배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참석하여 각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학생
- 선발기간 : 2009년 12월 21일(주일) ~ 2009년 1월 4일(주일) 16:30까지
- 선발시점 : 2009년 1월 16일(일) 13:00
- 본의 및 신청장소 : 교육과 ☎ 652-8200(☎ 472, 473)

총회 교회주변 전도

일 시 : 오전10시 12월 17일(수) 구약성 영성훈련 후 남당도(12월 20일(토) 14:00
일 시 : 오전10시 12월 19일(금) 구약성 영성훈련 전담
남당도(12월 20일(토) 14:00)
장 소 : 선교과 1차(101-301) 2차(101-307) 3차(101-401) 4차(101-407)

탁아부 수유실 안내

장 소 : 선교과 1층 탁아부실 옆방(남당) 시 실 : 아가네, 아가넷을 전담인직자 배치

12월 충현 기도의 향

- 교회의 방패와 삼광(창 15:1)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영현의 세계(요 18:36)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초소(엡 2:22)가 되게 하소서.
-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시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사 16:18)로 세워지게 하소서.
-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눅 19:10)을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기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1·1·1 전도와 총회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두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말씀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충현의 세대(유아·청소년·복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남당 시설 건립과 모든 사역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회 : 본당 113호

2009년 제2차 CMTC(2) (교육과정: 3주단, 장소: 갈리리)

시간	12월 14일(요일)
18:15-18:45	제3강 신조지 영역 실험
18:45-19:10	제4강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문제제기
19:10-19:30	제5강 영성숙을 통한 하나님의 문제제기
시간	12월 21일(주일)
18:15-19:00	직무훈련

*수강신청 : 충현 15:00부터 갈리리를 일구어서 접수

충현복지단 직인모임

- 모임부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교사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본인인원 1명 보통 소지자 우대
- 제2세출시 이력서(신분증, 주민등록증, 인체형 사진(2cmx2cm)) 지참소지, 자격증 시험, 졸업증서, 성적증서
- 제3세출시 12월 19(일) 17:00까지
- 제4세출시 12월 19(일) 17:00까지

☎ 552-8200(☎ 401)

성탄축하 찬양의 밤

일 시 : 12월 23일(목) 19:00
장 소 : 본당
주 관 : 제1·3교회위원회

성탄절 예배 (가족연대 예배)

일 시 : 12월 25일(일) 1부 9:00 2부 11:00
장 소 : 김성관 위임목사
장 소 : 본당

2008년도 제6차 학실 및 세례식						
날짜	시간	학실	장소	세례, 개종,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
12월 14일 (요일)	12시	성경학교 (초·중·고)	교육관 301호	세례장 (교회학교)	교육관 301호	
	22시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12월 21일 (주일)	12시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15:00-15: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15:30-16: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12월 28일 (주일)	12시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15:00-16: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16:00-16: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16:30-17: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17:00-17: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17:30-18: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18:00-18: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18:30-19: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19:00-19: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19:30-20: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20:00-20: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20:30-21: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21:00-21: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21:30-22: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22:00-22: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22:30-23: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23:00-23: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23:30-24: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24:00-24: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24:30-25: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25:00-25: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25:30-26: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26:00-26: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26:30-27: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27:00-27: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27:30-28: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28:00-28: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28:30-29: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29:00-29: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29:30-30: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30:00-30: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30:30-31: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31:00-31: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31:30-32: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32:00-32: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32:30-33: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33:00-33: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33:30-34: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34:00-34: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34:30-35: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35:00-35: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35:30-36: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36:00-36: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36:30-37: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37:00-37: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37:30-38: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38:00-38: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38:30-39: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39:00-39: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39:30-40: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40:00-40: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40:30-41: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41:00-41: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41:30-42: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42:00-42: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42:30-43: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43:00-43: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43:30-44: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44:00-44: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44:30-45: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45:00-45: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45:30-46: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46:00-46: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46:30-47: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47:00-47: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47:30-48: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48:00-48: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48:30-49: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49:00-49: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49:30-50: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50:00-50: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50:30-51: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51:00-51: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51:30-52: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52:00-52: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52:30-53: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53:00-53: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53:30-54: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54:00-54: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54:30-55: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55:00-55: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55:30-56: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56:00-56: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56:30-57: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57:00-57: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57:30-58: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58:00-58: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58:30-59: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59:00-59:3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59:30-60:00	기독교 (초·중·고)	교육관 302호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육관 302호	

새벽기도회 (12/15-12/21)

날짜	시간	학실	장소	세례, 개종,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
12월 15일 (월)	12시	성경학교 (초·중·고)	교육관 301호	세례장 (교회학교)	교육관 301호	
12월 16일 (화)	12시	성경학교 (초·중·고)	교육관 301호	세례장 (교회학교)	교육관 301호	
12월 17일 (수)	12시	성경학교 (초·중·고)	교육관 301호	세례장 (교회학교)	교육관 301호	
12월 18일 (목)	12시	성경학교 (초·중·고)	교육관 301호	세례장 (교회학교)	교육관 301호	
12월 19일 (금)	12시	성경학교 (초·중·고)	교육관 301호	세례장 (교회학교)	교육관 301호	
12월 20일 (토)	12시	성경학교 (초·중·고)	교육관 301호	세례장 (교회학교)	교육관 301호	
12월 21일 (주일)	12시	성경학교 (초·중·고)	교육관 301호	세례장 (교회학교)	교육관 301호	

예배 달당 (12/17-12/21)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 양	
12/17	수요일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딤후 2:12) 김성관 목사	강현철	최영자	영광 나라 찬양가사 (호산찬양대)
12/17	수요일	기도와 말씀에 힘쓰라 (행 6:1-4) 이재현 목사	강현철	유수일	민심 사람들 주의 군신 (선교찬양대)
12/19	금요일	유수일 목사	최영자	서영익	(메시아) 연합찬양대 및 오케스트라
12/21	주일 I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구원을 주신다 (딤후 2:11-14) 이재현 목사	강현철	권경호	[예배 찬양양] 정지택/함광범 외 / 해외 찬양단 (인도어 찬양대 솔로리스트) 천사 찬송가회 외 / 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오호란 박 거룩한 밤 외 / 클라리넷 관현악 (아연 오케스트라) 근우 오소리 임파나바 외 / 연방 중창단 (미도: 이사람)
12/21	주일 II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구원을 주신다 (딤후 2:11-14) 김성관 목사	강현철	정지철	
12/21	주일 III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구원을 주신다 (딤후 2:11-14) 김성관 목사	이희지	김광남	
12/21	주일 IV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구원을 주신다 (딤후 2:11-14) 양영선 목사	이계인	오호란 박 거룩한 밤 외 / 클라리넷 관현악 (아연 오케스트라)	
12/21	주일 V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구원을 주신다 (딤후 2:11-14) 강영국 목사	유현철	김근우	
12/21	주일연합	믿음의 여정 (마 7:8-13) 김성관 목사	최영자	김진욱	할렐루야 제1호성중창단 / 핸드벨 연주대 / 21교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주, 화, 목요일 동시복음 예배)	본당
IV	오전 1:00(주일) 동시복음 예배	본당
V	오전 3:00 (월요일이 드리는 예배)	본당
주일찬양예배	오전 3:00	본당
수요예배	오전 11:00 II 차대 7:00	본당
금요일찬양회	오전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화요일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금요일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출발